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교양교육

서 문 석*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국부론』에 대한 현대경제학의 재해석 |
| II. 연구의 배경 | V. 결 론 |
| III. 『국부론』의 핵심 개념 분석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대학교양교육의 텍스트로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한 사항을 검토한 것이다. 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이 급변하면서 전공교육을 넘어서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고전을 활용한 교양교육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해설서로 불리고 있다. 이 『국부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분석하고 경제학적 재해석에 대해 살펴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부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이기심’은 ‘연민’과 ‘동정심’, ‘동감’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신(神)이 자신의 내부에 세운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은 17세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으며, 스미스는 이것을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배후에 작동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메타포(metaphor)로 활용했을 뿐이다.

둘째, 『국부론』은 현대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스미스의 사상과 『국부론』의 내용은 발전된 현대경제학의 체계 속에 편입되었

* 단국대 교수, economichistory@dankook.ac.kr

고, 현대경제학의 흐름 속에서 자유방임, 시장과 경쟁의 우위, 부의 강조와 작은 정부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형화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 교양교육에서 『국부론』을 고전텍스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자본주의경제학의 출발점이며, 그의 ‘이기심’은 합리적인 개인의 제한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기계적인 원리로 현대경제학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애덤 스미스, 『국부론』, 이기심, 보이지 않는 손

I. 서 론

대학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직업과 연결시키는 자본주의적 대학교육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이런 인식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과 맞물려 상당한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은 연구와 교육에 대한 자신의 논리나 주장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이다. 그 결과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바탕으로 인간노동을 기계나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학교육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¹⁾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전공지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측면의 교양을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1) 김규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대학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동향과 사례」, 『디지털융복합연구』 17(8), 2019, 16쪽; 이신모, 「4차 산업혁명 사전대응태도와 대학교육 변화방향」, 『경영교육연구』 33(6), 2018, 107~131쪽.

사정을 기반으로 대학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시공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고전을 활용하는 교양교육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고전을 통한 교양교육은 기초지식의 제공, 사고의 심화, 시각의 확장, 인성 함양 등을 통해 교양교육으로서의 본질에 가장 부합된다고 평가되고 있다.²⁾

지금까지 고전을 통한 교양교육이 주로 인문학의 범주에 치중되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간이라는 개체를 넘어서서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과학분야의 고전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설명을 하여 현대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대학교양교육의 텍스트로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국부론』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부론』 자체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국부론』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 『국부론』을 새로운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시 영국의 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 등을 배경으로 『국부론』에 대한 보다 올바른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국부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국부론』의 내용, 『국부론』과 애덤 스미스의 다른 저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국부론』 해석에는 문제가 많으며, 애덤 스미스의 지적 편력과 18세기 영국 자본주의의 초기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그동안 『국부론』의 해석에는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³⁾

2) 권순구·윤승준, 「고전교육의 교육적 성과 분석-역량, 효능감, 흥미 변화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5), 2020, 162쪽; 정인모, 「고전 읽기와 교양교육」, 『교양 기초교육연구』 1(2), 2020, 2~5쪽.

3) 애덤 스미스 관련 연구사는 서진수, 『고전경제학파연구』,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9; 전통적인 시장중심주의,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최근의 연구들은 Jacob Viner, "Adam Smith and Laissez Fai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5(2), 1927, pp. 198-232; Samuel Fleischacker, *A Short*

반면에 『국부론』의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경향에서는 『국부론』이 자본주의의 초기 상황을 해석했지만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국부론』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당연하게 시대적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국부론』에서 사용된 일부 개념들을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개념들의 원래적 의미보다는 그 개념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효율적인 활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⁴⁾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교양교육의 측면에서 다룬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는 『국부론』 자체의 올바른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교양교육 텍스트로서 『국부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 교양 텍스트

- History of Distributive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강준호 옮김, 『분배적 정의의 소사(小史)』, 서광사, 2007); Joseph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 Press, 1954(김균 외 옮김, 『경제분석의 역사』 1,2,3, 한길사, 2013); 김광수, 『애덤 스미스: 정의가 변명을 이끈다』, 한길사, 2016; Andrew S. Skinner, *A System of Social Science: Papers Relating to Adam Smith*, Oxford Univ. Press, 1979; 박순성,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2003; 신중섭, 「도덕 감정과 이기심: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73(3), 2013, 109~133쪽; 조현수,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나타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정치이론적 의미에 관한 소고」, 『국제정치논총』 38(2), 1998, 23~42쪽; 조순, 「아담 스미스의 사상과 한국의 경제사회」, 조순 외, 『아담 스미스 연구』, 민음사, 1989, 9~28쪽; 김근배, 『애덤 스미스의 따뜻한 손』, 중앙books, 2016; 김옥경,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정의 개념」, 『사회와 철학』 제5호, 2003, 219~249쪽; 이영재,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전통에서 본 Adam Smith 도덕감정론의 함의」, 『시민사회와 NGO』 13(2), 2015, 229~264쪽을 참조.
- 4) 애덤 스미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은 Friedrich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1973(양승두·정승훈 옮김, 『신자유주의와 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민경국,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북코리아, 2016; 시카고학파에 의한 애덤 스미스의 왜곡에 대해서는 김광수, 「애덤 스미스 경제학에 관한 소위 “역설과 모순”의 재조명」,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9(2), 2020, 335~380쪽; 권기철·김규,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론과 자본주의의 정당화」, 『경제학논집』 11(2), 한국국민경제학회, 2002. 1~30쪽을 참조.

로서 현실 분석과 이론 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부론』의 핵심 개념에 대한 해석과 현대경제학에서 『국부론』의 활용경과를 이해함으로써 고전으로서의 『국부론』에 대한 대학생들의 균형잡힌 읽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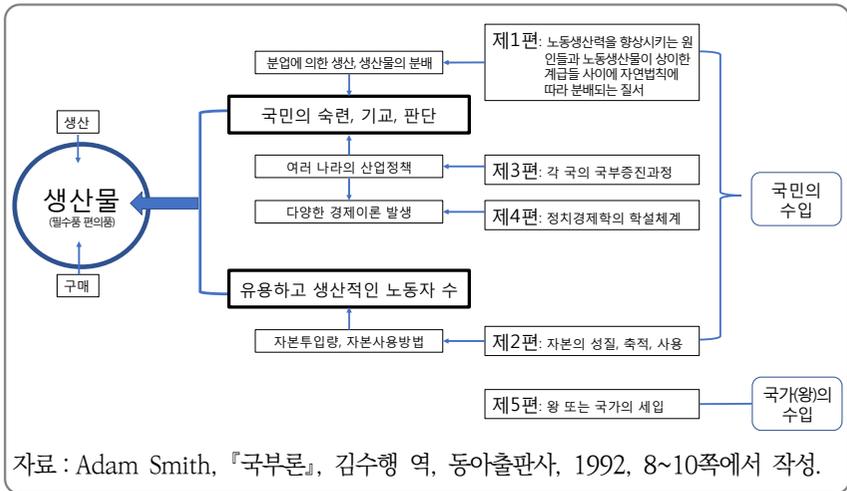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 고전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가지게 되는 애덤 스미스와 『국부론』 관련 지식 중에서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국부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애덤 스미스의 지적 배경과 그의 다른 저작들을 검토하여 핵심 개념의 원래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제IV장에서는 『국부론』이 현대경제학에 의해 재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 제V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양고전텍스트로서 『국부론』의 올바른 읽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

1. 『국부론』의 구성

『국부론』은 국민 대다수의 수입(소득과 같은 의미)에 대해 다룬 1~4편과 국가(왕)의 수입을 다룬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제1편에서는 노동생산물이 증대되는 데에는 분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분업이 이루어지는 문명사회와 그렇지 않은 미개사회의 생산과 분배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명사회에서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지만 총생산물이 많아 부양에는 문제가 없으며, 가장 빈곤한 노동자라도 절약하고 근면하다면 미개사회의 야만인보다 더 많은 필수품과 편의품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1] 『국부론』의 구성

제2편에서는 한 나라의 생산물이 풍족하거나 결핍되는 것은 유용하고 생산적인 노동자들의 수에 비례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수는 투입되는 자본량과 자본을 사용하는 방법에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제3편에서는 여러 나라가 국민의 노동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에 서로 다른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정책들은 노동생산물의 증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모든 산업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시행했는데 주로 농촌산업보다는 도시산업인 수공업, 제조업, 상업을 우대한 정책들의 도입 및 확립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편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들이 특정 계급의 이해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이론들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은 지식인들이나 왕, 국가의 행정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각 시대와 나라에서 시행된 결과들을 설명하였다. 특히 무역흑자에 의해 이익을 얻는 집단에 의해 형성된 ‘중상주의’와 이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 식민지 무역 등에 대해 학설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5편에서는 왕 또는 국가의 세입, 즉 정부의 세입과 국채에 대해 다루

었다. 4편까지는 국민 대다수의 수입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면 여기에서는 국가(왕)의 수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왕)의 필요한 경비, 사회적 부담의 방법과 장단점, 국채의 이유와 원인에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 『국부론』에 관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국부론』을 텍스트로 활용하는 교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관련지식 수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경제』와 『사회』 교과서에서 Adam Smith와 『국부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지식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⁵⁾

1) Adam Smith 관련 내용

경제사상가로서의 Adam Smith에 대한 설명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려있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사상을 제창’하였으며, ‘정부가 외적의 방어나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경제 분야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서술되어 있다.⁶⁾

또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는 자유방임의 구체적인 형태로 야경국가론을 제기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관’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했으며, 그의 ‘사유 재산의 철

5)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자본주의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편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존 교과서의 분석에서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교과서가 출간되기에 이르렀다(김종석 외, 『고등학교 경제분야 교과서 내용 검토』, KDI경제정보센터, 2005; 전택수 외,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6) 김주환 외, 『사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190~191쪽.

저한 보장, 개인적 이익 추구의 정당화,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결합되면서 근대 시장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⁷⁾시켰으며, ‘민간 경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정부⁸⁾’라고 묘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야경국가를 주장했다고 서술되고 있다.

2) 『국부론』 관련 내용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는 『국부론』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이기심이 동기가 되어 생산자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⁹⁾”이라고 이기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기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장려하는 추진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기심만이 시장을 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의 『국부론』에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을 소개하였다. 이는 개인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무의식적으로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노력할 때보다도 오히려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더 큰 사회 이익을 초래한다고 믿는다.¹⁰⁾

이렇게 ‘이기심’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며,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즉 모든 개인이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7) 김진영 외, 『경제』, 대한교과서(주), 2020, 32~46쪽.

8) 전택수 외, 앞의 책, 192쪽.

9) 김진영 외, 앞의 책, 32~46쪽.

10) 전택수 외, 앞의 책, 35쪽.

바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가격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시장가격기구
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시장 가격에 의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 주체가 이기적으로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
장 효율적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여겼다.¹¹⁾

이렇게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국부론』의 내용은 ‘이기심’을 기반
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의 활동방
식이며, 이것이 현실 경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바로 ‘시장가격
기구’라고 정리할 수 있다.

Ⅲ. 『국부론』의 핵심 개념 분석

1. 이기심

1) 『국부론』에서의 ‘이기심’

종교윤리가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형성했던 중세에는 이기심이 죄악으로
평가되었다. 왜냐하면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자비심을 발휘하여 주
변을 구제하고 신의 피조물로서 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
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근대로의 이행기에 활동했던 토마스 홉스(T. Hobbes)는 ‘만인에

11) 전택수 외, 위의 책, 192쪽.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어하기 위하여 절대국가를 등장시켰다. 반면에 근대 자본주의 형성기에 활동했던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을 절대국가가 외부에서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개인이 스스로 이기심을 절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된다면 모든 개인이 이기심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이익은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의 중요성을 『국부론』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로 표현했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양조장 주인·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self-love: 필자 주)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¹²⁾

그의 이기심론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모두를 존재하게 하며,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이익이 증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번역문에서 '이기심'이라고 번역된 『국부론』의 원문은 self-love이다. 일반적으로 self-love는 자애(自愛), 자기애(自己愛)라고 번역된다. 이에 반해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라고 풀이되며, 영어로는 주로 selfishness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자애 혹은 자애심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self-love가 이기심으로 번역되어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전까지 죄악시

12) 애덤 스미스, 『국부론(상)』, 김수행 역, 동아출판사, 1992, 22쪽. 이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that we expect our dinner, but from their regard to their own interest. We address ourselves, not to their humanity but to their **self-love**, and never talk to them of our own necessities but of their advantages(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3rd., 1784, Edited by R. H. Cambell & A. S. Skinner, and W. B. Todd, Indianapolis, LibertyClassics, 1981, pp. 26-27).

되던 이기심이 이제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해석된 것이다.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다. 제1편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에서 그는 한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생산물 전체가 토지지대, 노동임금, 자본이윤으로 나누어지며, 이것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지주(제1계급), 노동자(제2계급), 노동자의 고용주(제3계급)가 모든 문명사회를 구성하는 3대 계급¹³⁾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는 이윤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의 고용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본투자자의 의도·계획이 노동의 가장 중요한 모든 작업을 결정·지휘한다. 모든 의도·계획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윤이다. … 제3계급 중 보통 최대의 자본을 투하하며, 그들의 부로 인해 정부로부터 가장 큰 배려를 받는 층은 상인과 장인제조업자들이다. […] 그들은 사회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특수한 사업상의 이익을 더 많이 염려하므로, 그들의 판단은 가장 공평한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공평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계급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있다.¹⁴⁾

자본투자자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이고, 이들이 가장 공평하다고 할 경우에도 사회적 이익과는 다르고, 심지어는 상반될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더 고려하며, 이들을 ‘결코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계급’,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한 적이 있는 계급’이라고 보았다.

13) 이런 계급론은 프랑스의 증농학과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국가의 부가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케네(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économique, 1758)로 대표되는 이 논의는 현대경제학에서 경제계획의 단초를 마련했고, 마르크스(K. Marx)에게 이어져서 계급분석으로 발전된다.

14) 『국부론(상)』, 253~254쪽. 애덤 스미스의 여러 저작을 참고하기 때문에 출처를 특정하기 위해 '투고규정'의 표기방식과는 다르게 다시 인용되는 애덤 스미스 저작에 한해서는 '저서명'이나 '출판사' 등을 표기하기로 함.

그렇다면 이렇게 대립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계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경우에는 서로의 이익이 대립되거나 침해되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이전 저작인 『도덕감정론』¹⁵⁾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2) 『도덕감정론』에서의 ‘이기심’

애덤 스미스는 새롭게 등장한 경제체제에 적절한 사회적·도덕적 윤리를 설명하면서 『국부론』에서 ‘이기심’으로 번역되었던 ‘self-love’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였다.

자기 자산에 대한 사랑, 즉 자애심(自愛心: self-love)은 어떤 정도로도, 어떤 방면에 있어서도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는 천성(天性)이다. 그것이 공동의 이익을 방해할 때에는, 그것은 언제나 악덕이 된다. 그것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돌보도록 할 때에는, 그것은 단지 무죄일 따름이며, 따라서 그것은 칭찬받을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어떤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된다.¹⁶⁾

그는 이전의 도덕철학자들처럼 자애심을 없애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자애심은 자신의 행복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며, 이기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완성된 인간 본성이라고 주장했다.¹⁷⁾ 반면에 동일하게 이기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selfishness’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그의 동기예의 이기성(selfishness)

15)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하기 이전에 이미 그의 명성을 널리 알린 저작이 바로 1759년에 출간된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이다. 이 저작은 중세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져가는 영국의 상황 속에서 적절한 사회적 도덕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정리된 저작이다.

16)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박세일·민경국 역, 비봉출판사, 2018(초판은 2009년에 출간), 580쪽.

17)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김광수 역, 한길사, 2016, 118쪽.

에 대하여 어떠한 동류의식도 거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¹⁸⁾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이기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천성에 포함되는 다른 행동원리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도덕감정론』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利己的 : selfish)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 는 분명히 몇 가지 행동원리가 존재한다. 이 행동원리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행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 행운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 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운을 얻은 타인의 행복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민(憐憫 : pity)이나 동정심(同情心 : compassion)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느끼게 되는 종류의 감정이다.¹⁹⁾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 이외에도 자신의 이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운을 즐겁게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인 연민과 동정 심은 ‘무도한 폭도나 가장 냉혹한 범죄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동감(sympathy)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⁰⁾

18)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148쪽. 『도덕감정론』에서 selfishness는 모두 5번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p. 583)에 대해 언급한 부분 이외에는 ‘천성의 이기심(selfishness)과 탐욕에도 불구하고’(p. 345), ‘부정의 및 악의에 차 있거나 비열한 이기심’(sordid selfishness, p. 571), ‘과도한 이기심’(excessive selfishness, p. 576)’ 등으로 표현하며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서술하고 있다.

19)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3쪽.

20)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7쪽. 국내의 두 번역본은 모두 동감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공감(共感)으로 번역하는 경우(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도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흡수(absorption

동감(sympathy)이라는 말은, 그 가장 적절하고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류의식(同類意識: fellow-feeling)을 나타내는 것이다.²¹⁾

따라서 그는 동감을 “어떤 의미에 있어도, 이기적 본성(selfish principle)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동감은 “당신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즉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내가 당시의 처지에 있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게 될지를 상상하는 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²²⁾

그리고 이렇게 동감을 통해 제3자인 관찰자가 당사자와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²³⁾ 스미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위를 관찰하고 판단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 속의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²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과 같은 이유로 칭찬받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 자신도 칭찬을 받을만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in the feelings themselves)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정리(신중섭, 「도덕감정과 이기심」, 『철학논총』 73, 새한철학회, 2013, 115쪽, 각주-15)되기도 했다. 또한 With-Feeling(mitgeföhlung)으로 사전에 실려있는 sympathy와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In-Feeling(einföhlung)의 의미를 가지는 empathy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Jennifer Edson Escalas and Barbara B. Stern, “Sympathy and Empathy: Emotional Responses to Advertising Drama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9, No. 4, 2003, p. 567 참조).

21)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77쪽.

22)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609쪽; 김용환, 앞의 논문, 168쪽.

23)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31쪽.

24) impartial spectator를 민경국·박세일 번역본에서는 ‘공평무사한 방관자’라고 하고 있지만, 김광수 번역본에서는 ‘공정한 관찰자’(p. 290)로 번역하고 있기에 여기에 따른다.

spectator, 번역본에는 공평무사한 방관자-이하 동일)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듯이 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이 우리가 희망한 대로 보인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해 한다.²⁵⁾

바로 ‘공정한 관찰자’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자신이며, ‘가슴 속의 이상적 인간(the ideal man within breast),²⁶⁾ ‘이성, 원칙, 양심, 마음속의 거주자, 내면의 인간, 우리의 행위의 위대한 재판관 및 중개인²⁷⁾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정한 관찰자’가 그 상황에 공감하면 시인(approval)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자는 개인의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행복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는 행위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유용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용한 것을 빼앗는 행위나, 또는 이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타인을 희생시켜 가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천성적인 선호에 몰두하는 행위는 공정한 관찰자로서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것이다.²⁸⁾

결국 공정한 관찰자는 ‘신이 우리 내면에 세워놓은 대리인(Those vicegerents of God within us)’인 것이다. 즉 이 모든 출발은 바로 신(神, God),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造物主)로서의 신이다.

25)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217쪽.

26) 신중섭, 「도덕감정과 이기심」, 『철학논총』 73, 새한철학회, 2013, 115쪽;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272쪽.

27)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김광수 역, 327~328쪽.

28)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156쪽.

신이 우리 내면에 세워놓은 대리인은 이 도덕준칙을 위반한 자를 내적 수치심과 자책의 고통으로써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은 결코 없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도덕준칙을 준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의 평정(平靜)고 혼쾌함, 그리고 자기만족(自己滿足)으로써 보상해준다.²⁹⁾

공감이라는 감정에 의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해 공감함으로써 이기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³⁰⁾

2. 보이지 않는 손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게 된다는 수준에서 단지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애덤 스미스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자리잡았다.

그는 자신의 신학, 윤리학, 법학을 기반으로 당시 영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했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단 한 번 언급하였다.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구입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29)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308쪽.

30) 스미스가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었던 테에는 허치슨, 흄, 스미스로 이어지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이영재,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전통에서 본 Adam Smith 도덕감정론의 함의」, 『시민사회와 NGO』 13(2), 2015, 229~264쪽)

것이 된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며 그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해외산업보다 국내산업의 지원을 선호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을 의도한 것이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지도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이득을 의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의도했을 경우에 비해] 사회에 보다 적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종종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³¹⁾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산업에 투자하여 최고의 노동생산성이 나타나도록 하면 그 사회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했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2) 『도덕감정론』의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도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을 단 한 번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에 기여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부자는 [...] 그들의 본성적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들이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허영심과 만족될 수 없는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개량의 성과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생활필수품

31) 애덤 스미스, 『국부론(상)』, 434쪽.

의 분배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중에 부지불각 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 번식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신의 섭리는 대지를 소수의 귀족과 지주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분배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망각하지도 방기하지도 않았다. 32)

그는 부자의 생산량이 자신의 소비 이상으로 생산될 경우 그 수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토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 분배되었을 때의 수준으로 생활필수품을 분배하게 되는 ‘신의 섭리’라고 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의 섭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신의 섭리에 의한 조화예정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33)

3) 『천문학사』의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도덕철학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한 것은 옥스퍼드대학 재학시절 섭렵했던 자연과학 서적을 통해서였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집필했던 「천문학사」는 이 시기에 탐독했던 서적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 시기 그는 뉴턴의 저작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뉴턴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규칙성이나 유사성을 발견하여 서로 다른 현상들을 완벽하게 연결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그의 입장은 자신의 이후 저작에서 뉴턴의 방법론을 많이 도입³⁴⁾하였는데 그런 저작 중의 하나인 「천문학사」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언급하였다.

32)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345~346쪽.

33) “인류사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눈으로 고찰하는 경우, 하나의 위대하고 거대한 기계(機械)처럼 보인다. 이 기계의 규칙적이고 조화로운 운동은 수천 가지의 유쾌한 결과들을 발생시킨다”(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개역판)』, 607쪽).

34) 김지원, 「아담스미스의 자연관과 뉴턴과학에 대한 이해」, 『한국과학사학회지』 32(1), 2010, 69~71쪽.

자신이 가진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불은 타오르고, 물은 다시 새로워진다. 무거운 물체는 내려가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날아간다.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문제에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천동과 번개, 폭풍우와 햇빛, 이보다 더 불규칙한 사건들은 그의 호의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³⁵⁾

여기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은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필연적인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자연 현상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알 수 없는 불규칙한 자연 현상들에 신(주피터)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작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혹은 자신은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의 배후에 작동하는 원리로 ‘언급’했을 뿐이다.³⁶⁾ 『천문학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불규칙한 현상을, 『도덕감정론』에서는 분배문제를, 『국부론』에서는 개인투자과 공공이익문제를 바람직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했다. 이렇듯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경제적 원리나 시장의 작동원리로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손’³⁷⁾이라는 용어는 스미스가 최초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고전문헌 속에 스미스가 사용했던 의미의 손(hand)에 대한 표현이 사용

35) Adam Smith, “History of Astronomy”,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ebook), 1795, p. 25.

36) 심지어는 『국부론』을 번역한 김수행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시민 혁명의 진화와 폭발에는 큰 영향’을 끼쳤던 일종의 ‘혁명구호’라고 보았다(김수행, 「보이지 않는 손은 혁명구호」, 『경향신문』, 2009.4.20).

37) 이황희, 「애덤 스미스의 통치론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176쪽; A. L. Macfie, “The Invisible Hand of Jupiter”,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2, No. 4, 1971, pp. 595-599; William D. Grampp, “What Did Smith Mean by the Invisible Han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8, No. 3, 2000, pp. 441-465; Eamonn Butler, 김정완 역, 『애덤 스미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2, 121쪽.

되기도 했지만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희곡 『Macbeth』에서 ‘Thy Bloody and Invisible Hand’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IV. 『국부론』에 대한 현대경제학의 재해석

1. 『국부론』에 대한 반응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등장과 동시에 전 유럽을 휩쓸었으며 그를 최고의 학자로 대접받게 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현상은 『국부론』이 중세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체제에 들어서기 시작한 당시 영국의 상황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배경으로 하였다.

당시 왕권과 결탁되어 있던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특권에 반대하여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했다며, 토지와 지주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새롭게 등장하는 상업과 제조업으로 확대시켰다. 그의 이런 주장은 새롭게 부를 축적하고 있던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또한 사회의 중심이었던 종교와 신분 대신에 상업과 제조업을 이끌며 사회적 부를 창출

38) “Come, seeling night,
Scarf up the tender eye of pitiful day;
And with thy bloody and **invisible hand**
Cancel and tear to pieces that great bond
Which keeps me pale! Light thickens, and the crow
Makes wing to the rooky wood:”(William Shakespeare, 『MACBETH』, *Th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ebook) vol 7, Macmillan and Company, 1865, p. 468; Peter Harrison, “Adam Smith and the History of the Invisible Hand”,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2(1), 2011, pp. 31-33; Gavin Kennedy, “Adam Smith and the Invisible Hand”, *Econ Journal Watch*, 6(2), 2009, pp. 242-243.

해 나가기 시작했던 신흥부르조아의 역할을 제시했으며, 국민국가의 중심이었던 국왕의 국가 운영의 방안까지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스미스는 당시 권력층으로부터도 일정 정도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결국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사회의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의 사상과 『국부론』은 유럽 전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와 『국부론』에 대한 반응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독일에서는 자유무역론을 중심으로 하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영국에서나 적절한 이론일 뿐 독일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각각의 나라들은 역사적 발전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만큼 발전하지 못한 독일에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독일을 중심으로 역사적 연구를 기반으로 독일민족주의적 경향을 나타내었던 경제학자들을 역사학파(historical school)라고 부른다. 특히 이들은 현재까지도 애덤 스미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인 소위 ‘애덤 스미스 문제’, 즉 『국부론』의 이기심과 『도덕감정론』의 이타심간의 불일치를 주장하였다.³⁹⁾

2. 『국부론』의 활용

경제학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생산양식에서도 기능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중세나 고대, 심지어는 원시 사회에서도 경제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자본주의경제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에 관해 설명하는

39) Leonidas Montes, “Das Adam Smith Problem: Its Origins, the Stages of the Current Debate, and One Implication for Our Understanding of Sympathy”,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25(1), 2003, pp. 63-90; 변영진, 「‘아담 스미스 문제’에 대한 고찰: 공감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69호, 2020, 209~232쪽; 이황희, 앞의 논문, 10~14쪽.

경제학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18세기를 전후로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최초의 해석은 산업혁명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사회의 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석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경제학의 창시자, 『국부론』은 자본주의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했던 곳에서 애덤 스미스에 의해 자본주의의 분석이 시작되었다면 자본주의가 변해서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면 새로운 경제분석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바로 이렇게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학적 해석이 등장했고, 그 해석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여러 경제학파를 형성하면서 현대경제학이 발전해왔다. 그 와중에서 각 학파들은 자본주의 분석의 출발점이었던 『국부론』을 나름대로 활용하고 재해석했다.

그들 중에는 먼저 애덤 스미스(1723~1790)에 이어 맬더스(T. Malthus, 1766~1834), 리카아도(D. Ricardo, 1772~1823), 밀(J. S. Mill, 1806~1873)에 이르는 약 100여 년 동안 영국에서 활동했던 고전학파(Classical School)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애덤 스미스가 영국 산업혁명 초기의 모습을 다루었다면 맬더스와 리카아도는 영국 산업혁명의 전성기를, 밀은 영국 자본주의의 전환기를 다루었다. 이들은 영국 자본주의의 독점적 성장에 기반했기 때문에 『국부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19세기 중반이 되면 유럽 전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다. 이제 유럽 여러 나라도 공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독점적인 생산국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 결과 유럽 시장을 잃어버리고, 이들 나라의 상품들과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영국에서는 수출이 급감하여 생산이 줄어들었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19세기 중반에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공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공장들은 애덤 스미스와 고전학파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분업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데에 집중했다. 하지만 공황이 발생되자 창고에 쌓여가는 상품의 판매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졌다. 사회 전반의 초과수요 상황이 초과공급 상황으로 변화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초과공급된 상품의 판매 방안을 찾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관심영역 밖에 있던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사람들, 즉 소비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1870년대에 들어서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 자신의 만족감(효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만족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이 유럽을 비롯해 영국에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경제학자들을 한계효용학파(Marginal Utility School)라고 부른다.

이렇게 수요측면에 대한 분석이 체계화되자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학파들은 공급만을 강조했던 학파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애덤 스미스의 경제이론도 분업을 비롯한 공급측면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국에서는 이전의 고전학파와 새로 등장한 한계효용학파의 이론을 절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고전학파의 논의는 공급측면을, 한계효용학파의 논의는 수요측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합했다. 마셜(A. Marshall)로 대표되는 이런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제학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통해 시장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교환량이 결정된다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을 경제학에서는 신고전학파(neo-classical school)라고 부르고, 이 이론체계가 현대 주류경제학의 기반이 되었다.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은 고전학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애덤 스미스

의 출발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경제학을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전개하려는 시도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경제 상황을 수학으로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내적 논리성과 엄밀성은 증대되었지만 수식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제문제는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윤리학, 법학, 정치학 등 경제학이 분화되기 이전에 관련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던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수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제한받기 시작했다.

이제 경제학은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여 수량으로 표시하고, 이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정의된 개념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관계로 이들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요소 이외에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Ceteris Paribus)⁴⁰⁾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와 생산자는 다른 모든 요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을, 생산자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자신의 '이기심'에 기반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여러 사람의 소비량과 생산량이 합해져서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수준의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하며, 이렇게 기계가 톱니바퀴에 의해 정해진 방식으로 작동되듯이 수리적인 물량에 의해 자동적으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을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현대경제학에 맞추어진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시카고 대학(The Univ. of Chicago)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통화주의자 및 시카고 학파의 해석을 통해 본격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⁴¹⁾ 이들이 “보이지 않

40) The Latin phrase “ceteris paribus” or “caeteris paribus”-literally meaning “other things being equal”-has already been used in a non-technical sense by Cicero(A. Reutlinger, and G. Schurz, and A. Hüttemann, “Ceteris Paribus Law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pp. 7-9).

41) 김광수, 「애덤 스미스 경제학에 관한 소위 '역설과 모순'의 재조명: 사회과학적 방

는 손'의 은유와 합리적 경제인의 명제에 매몰되어 애덤 스미스를 자유방임주의, 시장지상주의, 신자유주의의 선구자⁴²⁾로 활용하면서부터 애덤 스미스에 대한 해석이 더욱 정형화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oil shock)을 거치면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지상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이런 주장이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의 경제정책(Reaganomics)과 영국 대처 수상의 정책(Thatcherism)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흐름은 신자유주의로 불리며 경제학계에 주류학설로 자리잡았다. 이들에 의해 스미스와 『국부론』은 자유방임, 신자유주의의 기원, 부와 물질적 풍요의 강조,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무한경쟁, 시장지상주의, 국가개입의 최소화⁴³⁾ 등을 표상하는 것으로 정형화되었다. 그리고 현대경제학 교과서에서의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애덤 스미스와 『국부론』을 설명하고 있다.⁴⁴⁾

V. 결 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고도화되고 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교육은 커다란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절한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교육을 넘어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고전을 활용한 교양교육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론을 중심으로],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9(2), 대한민국학술원, 2020, 335~380쪽; 김광수, 「현대 과학철학 및 경제철학의 흐름과 스미스의 과학방법론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62(1), 2014, 133~170쪽.

42) 김광수, 2020, 368쪽; 심지어 『국부론』 출간 200주년을 맞은 1976년의 학술대회에서 “스미스는 지금 시카고대학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발언할 정도였다(김광수, 위의 논문, 346쪽, 각주 4).

43) 김광수, 위의 논문, 337쪽.

44)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박영사, 2010, 23, 443쪽; N. G.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Dryden Press, 1998, p. 145.

그러나 기존의 교양교육에서 다루는 고전은 거의 인문학적인 범주에 제한되어 있으며, 고전 자체의 엄밀한 해석에 머물렀던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해설서로 불리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대학교양교육의 텍스트로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국부론』은 노동력과 노동량을 통해 국민이 사용할 생산물에 대해 다루는 부분(1~4편)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다루는 부분(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론을 주장한 학자로, 『국부론』에 대해서는 ‘이기심’을 발휘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내용의 저작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국부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이기심’은 『도덕감정론』에서 ‘연민’과 ‘동정심’, ‘동감’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신(神)이 자신의 내부에 세운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다.

넷째, ‘보이지 않는 손’은 17세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으며, 이를 스미스가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배후에 작동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메타포(metaphor)로 활용했을 뿐이다.

다섯째, 『국부론』은 현대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스미스의 사상과 『국부론』의 내용은 발전된 현대경제학의 체계 속에 편입되었고, 현대경제학의 흐름 속에서 자유방임, 시장과 경쟁의 우위, 부의 강조와 작은 정부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형화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 교양교육에서 『국부론』을 고전텍스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부론』을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수강생들은 이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심’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먼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스미스가 사용한 ‘이기심’은 ‘self-love’이며, 이 개념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신(神)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이기심이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도 단순하게 ‘시장가격기구’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17세기 영국에서 스스로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일이 작동되는 원리를 가리키는 메타포 정도의 의미였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

셋째,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본주의경제학의 출발점이며, 그의 ‘이기심’은 합리적인 개인의 제한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기계적인 원리로 현대경제학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스미스의 『국부론』은 모든 상품이 부족하던 자본주의 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초과공급을 배경으로 다양한 기술혁신에 직면해 있는 후기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하기보다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인의 자세와 노력을 수강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순구·윤승준, 「고전교육의 교육적 성과 분석-역량, 효능감, 흥미 변화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5), 2020, 161~173쪽.
- 김광수, 「애덤 스미스 경제학에 관한 소위 ‘역설과 모순’의 재조명: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9(2), 대한민국학술원, 2020, 335~380쪽.
- 김광수, 「현대 과학철학 및 경제철학의 흐름과 스미스의 과학방법론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62(1), 2014, 133~170쪽.
- 김규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대학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동향과 사례」, 『디지털융복합연구』, 2019, 17(8), 15~26쪽.
- 김수행, 「‘보이지 않는 손’은 혁명구호」, 경향신문, 2009.4.20.
-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 155~180쪽.
- 김종석 외, 『고등학교 경제분야 교과서 내용 검토』, KDI경제정보센터, 2005.
- 김주환 외, 『사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김지원, 「아담스미스의 자연관과 뉴턴과학에 대한 이해」, 『한국과학사학회지』 32(1), 2010, 69~91쪽.
- 김진영 외, 『경제』, 대한교과서(주), 2020.
- 변영진, 「‘아담 스미스 문제’에 대한 고찰: 공감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교육』 제69호, 2020, 209~232쪽.
- 신중섭, 「도덕감정과 이기심」, 『철학논총』 73, 새한철학회, 2013, 109-133쪽.
- 이신모, 「4차 산업혁명 사전대응태도와 대학교육 변화방향」, 『경영교육연구』 33(6), 2018, 107~131쪽.
- 이영재,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전통에서 본 Adam Smith 도덕감정론의 함의」, 『시민사회와 NGO』 13(2), 2015, 229~264쪽.

-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박영사, 2010.
- 이황희, 「애덤 스미스의 통치론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전택수 외,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 정인모, 「고전 읽기와 교양교육」, 『교양기초교육연구』 1(2), 2020, 1~24쪽.
- 아담 스미스, 「국부론」, 동아출판사, 1992.
-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김광수 역, 『도덕감정론』, 한길사, 2016.
-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역, 『도덕감정론(개역판)』, 비봉출판사, 2018(초판은 2009년에 출간).
- 이먼 버틀러, 『애덤 스미스의 이해』, 김정완 역, 대영문화사, 2012.
- Escalas, Jennifer Edson and Barbara B. Stern, “Sympathy and Empathy: Emotional Responses to Advertising Drama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9, No. 4, 2003, pp. 566-578.
- Grampp, William D., “What Did Smith Mean by the Invisible Han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3), 2000, pp. 441-465.
- Harrison, Peter, “Adam Smith and the History of the Invisible Hand”,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2(1), 2011, pp. 29-49.
- Kennedy, Gavin, “Adam Smith and the Invisible Hand”, *Econ Journal Watch*, 6(2), 2009, pp. 239-263.
- Macfie, A. L., “The Invisible Hand of Jupiter”,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2(4), 1971, pp. 595-599.
- Mankiw, N. G., *Principles of Economics*, Dryden Press, 1998.
- Montes, Leonidas, “Das Adam Smith Problem: Its Origins, the Stages of the Current Debate, and One Implication for Our Understanding of Sympathy”, *Journal of the History of*

- Economic Thought*, 25(1), 2003, pp. 63-90.
- Reutlinger, A. and G. Schurz, and A. Hüttemann, “Ceteris Paribus Law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 Shakespeare, William., 「MACBETH」, *Th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ebook) vol 7, Macmillan and Company, 1865.
- Smith, Adam, “History of Astronomy”,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ebook). 1795.
-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3rd., 1784, Edited by R. H. Cambell & A. S. Skinner, and W. B. Todd, Indianapolis, LibertyClassics, 1981.

Abstract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and Liberal Arts Education

Seo, Moonseok(Dankoo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a few things for the proper use of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as the text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A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ies is rapidly changing, the importance of liberal arts education that goes beyond major education to nurture comprehensive and creative talent has been highlighted. An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liberal arts education using classics.

This study analyzed the core concepts of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which is called the first full-fledged commentary book on the capitalist system as a representative classic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and studied the reinterpretation of econom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love', the core concept of 'The Wealth of Nations', is based on consideration for others through 'pity', 'compassion', and 'sympathy'. And it was a concept premi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impartial spectator' that God established within him. Also, 'invisible hand' was a common term in the 17th century. It was merely a metaphor that Smith used to explain the principles at work behind the recognition or unintended occurrence of things.

Second, 'The Wealth of Nations'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economics, but as the capitalist economy developed, Smith's ideas and the contents of 'The Wealth of Nations' were incorporated into the developed system of modern economics. And in the flow of modern economics, it was stereotyped as a symbol of laissez-faire, market and competition advantage, emphasis on wealth, and small governmen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when 'The Wealth of Nations' is used as a classical text i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a correct interpretation of 'self-love' and 'invisible hand' is necessary.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is the starting point of capitalist economics, his 'self-love'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limited choice of rational individuals, and the 'invisible hand' has been reorganized into modern economics as a mechanical principle that achieves market equilibrium.

[Key Words]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self-love, invisible hand

접 수 일 : 2021년 08월 22일

심사완료 : 2021년 09월 05일

게재결정 : 2021년 09월 16일